

조광복 청주노동인권센터 노무사

인권은 경계를 가르지 않는다

"노동인권센터는 노동인권 상담, 법률지원 그밖에 노동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벌임으로써 이 사회에서 여전히 홀대받고 있는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드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가운데 비정규 노동자, 이주 노동자, 성불평등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중소·영세·미조직 노동자, 실업 노동자와 같은 취약 노동자의 권리 옹호를 가장 앞선 책무로 삼는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정관의 일부다. 센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이젤로 세워 놓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고뿔에 심하게 걸린 사내가 뜨거운 차 한 잔을 건네며 말문을 열었다. "우리 정관이 참으로 훌륭합니다."

스스로 '상담꾼'이라고 소개한 그는 청주노동인권센터에서 일하는 조광복(49) 노무사. 정관이 담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 상담을 하고 있다는 그는 '모든 사람은 고루 행복하게 살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믿는다. '노동자들의 든든한 벗'으로 지역에서는 이름 깨나 알려진 그였지만 노동 상담과 달리 자신의 삶을 내보이는 인터뷰에는 꽤나 소극적이었다. 한 번의 거절, 또 한 번의 인터뷰 실패 이후 저녁 만남이 잡혔지만 전제가 따라붙었다. 자신을 노동법 전문



가나 인권 활동가 내지 조직 활동가로 봐 주지 말아달라는 당부였다. 또 '지극히 사적인 고통을 겪었던 20대의 삶'은 밝히지 않겠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충분한 이야기 채집이 불확실할 수 있다고 직감하던 순간,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페이스북 담벼락이었다. 간간이 끼적여 놓은 속 깊은 고백의 글들은 삶과 세상을 마주하는 조 노무사의 철학을 엿보는데 훌륭한 돋보기가 됐다.

상담은 변화의 씨앗을 품는 일

그에게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의미가 없어 보였다. 언젠가 지역 주간신문의 칼럼을 통해 소신을 밝힌 적이 있는데 경계를 가르고 낙인을 찍는 일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였다. '내가 이른바 진보냐 보수냐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를 가리지 않고 노동자를 지원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인권은 경계를 가르지 않는다는 믿음이 그것이다. … 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경

계를 가르고 낙인찍기를 선동하는 무리들이 권리를 억압받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충청리뷰, 2013. 11.)

조직운동을 하는 몇몇 사람들은 정파가 다르면 밥도 같이 먹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의 관심사는 되지 못했다. 좋은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한 발을 내딛는 것도 힘든 세상에서 최대치의 한 발을 내딛는데 관심을 둘 뿐이라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기질로 인해 청주노동인권센터에는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표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소위 극보수 단체 근무자들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센터 회원이 530명 정도 됩니다. 노래방 사장도 있고 사업주도 있죠. 전국적으로 '노동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가 거의 소멸했는데, 우리 센터는 상담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 상담 받은 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대해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도 현 정부를 옹호하느냐 비난하느냐는 나중 문제잖아요. 갇힌 아이들이 얼마나 딱 하냐, 아이들이 빨리 구조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측은지심 아니었습니까."

하루 종일 얘기만 해야 할 때도 있고, 한 해 800건이 넘는 상담과 법률지원을 해야 하는 일상이지만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 상담이 체질인 듯했다. 포기가 빠르다는 점, 상담에 대한 그만의 가치관이 있다는 것도 '상담꾼' 조광복을 지치지 않게 하는 힘이다. 그는 상담을 '변화의 씨앗을 품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부당 해고 이후 법적인 도움을 받아 복직했다면 그것도 변화요, 노동조합을 만들어 억눌린 현실을 바꾸는 것





도 변화, 좌절을 맛보는 것도 변화이니 상담을 받은 인연으로 삶이 좀 더 나아졌다면 그 과정 자체가 변화의 씨앗을 품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모든 일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다. 속된 말로 뒤통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고, 절박한 상황에서 돈 몇 푼에 회사와 합의를 하고 도망치는 사람, 돈을 떼어먹는 노조 간부들도 적지 않았다. 초기엔 회의감도 들었지만 그마저도 세상살이의 일부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다.

오히려 답답한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였다. 일반 시민단체와 달리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정파 갈등, 파벌 다툼이 잦았고 정서적으로도 규율이 강해 높은 벽을 실감할 때가 많았다. 그는 이러한 생각을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권력을 앞세워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들과 거기에 저항하는 자들 사이에는 이를테면 화해불가의 요단강 같은 것이 흐

른다. 물론 저항하는 자들 사이에서도 흐르는 것이 있는데 요단강에 비하면 실개천에 가깝다. 그 실개천을 우리는 가끔 요단강이라 부르기도 한다.'

차이를 횡단하는 즐거운 모험

조광복 노무사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청주노동인권센터에 몸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행운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며 스스로 꺼낸 말이다. 생각의 차이를 딛고, 정견의 차이를 딛고, 그 밖의 사소한 차이를 딛고 서로 얼굴 맞대 지혜를 모아서 기댈 곳 없는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아랫목을 내줄 수 있는 사랑방, 그런 노동인권센터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생기길 원한다는 것은 그의 진심이었다.

행운이 있기 전엔 혼란도 있었다. 8년 동안 개업 노무사로 일했고, 노동인권센터 일을 한 것이 올해로 7년차에 접어들었다. 노동 상담으로 밥 벌어먹고 산 세월만 15년차다. 천안에서 노무사 업을 하다 청주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07년. 돈에 목말랐던 시절도 있었지만 욕구가 충족되니 재미도 보람도 없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충남본부 양쪽에서 자문 노무사를 맡아오다 청주로 거주지를 옮겼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무료 상담 필요성에 공감하게 됐고, 그해 5월 정진동 목사의 호를 딴 '호죽노동인권센터'가 문을 연다. 굵직한 노동 현안들을 하나 둘 해결하고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의 무료 상담은 지역사회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3년여. 2010년 5월 호죽노동인권센터에서의 생활도 마침표를 찍게 된다.

노동자의 집 또는 노동 상담소처럼 독립적인 비영리 민간 상담소를 원했던 조 노무사와, 부설기관으로 편입시키길 원했던 민주노총의 인권센터를 바라보는 관점 차이가 결정적 요인이 됐다.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상근자의 부당해고

사건 수임도 문제가 됐다. 노동인권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는 조 노무사와 관변단체까지 상담하는 것을 마뜩찮아 한 민주노총의 차이는 극복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조 노무사는 결국 호죽노동인권센터를 사직했고, 그해 8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김인국 신부의 도움을 받아 청주노동인권센터를 개소하게 된다.

"아주 가끔 나를 돌아볼 때가 있다. 2010년 청주노동인권센터를 개소한 날, 내 몸과 마음은 극도로 쇠약해 있었다. 그 때문에 운영위원인 김인국 신부님, 김배철 교수님, 권혁상 충청리뷰 대표님 그리고 전택수 집행위원장님이 모이셨다. 위원회에서는 '센터는 나중에 활동해도 된다. 사람이 먼저다. 업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휴직을 시키자'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인사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센터 대표이신 김인국 신부님이 나를 불러 이런 말씀을 하셨다. '마음이 고요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달간의 요양은 이후 활동과 생활에 있어 평생을 두고도 잊을 수 없는 커다란 에너지가 됐다. 좋은 대표와 운영위원, 센터 활동을 지지하는 회원들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고백했다. 지금도 그는 청주노동인권센터와 같은 단체가 지역마다 생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병원으로 치자면 '마을의원' 쯤에 해당한다. 다음은 그가 지난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조직이 커지면 필연적으로 분업화되고, 분업화에 따른 기능화를 피하기 어렵다. 그것은 대형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선택해야 하는 방안인데 업무분장과 업무에 따른 권한 및 책임 소재의 배분 그리고 공식적인 결재가 큰 조직의 운영원리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조직은 오합지졸이 될 것이다. 이를테면 민주노총 상근 활동의 기본은 상담에서 시작되는데 상담의 영역도 일정 배분될 수밖에 없다. 법규 상담과 조직상담, 조직상담 중에서도 신규 노조 조직상담과 기존 노조 활동 상담 등. 그런데 이 조직 운영 원리가 다수의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분업화되고 기능화 된 조직시스템에서 짧은 시간에 종합적인 처방을 내리기에는 그 몸집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을 보아도 그렇다. 그래서 동네에 가정의학과가 필요하고 보건소가 필요하고 마을의원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마을의원은 수술을 할 수 없다. 당연히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집도가 가능한 종합병원으로 소견서를 첨부해 보내야 한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필요한 것이고 민주노총이 더 건강하게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다."

단 한 발짝을 떼기 위한 전력투구

'부지런 하고 부지런 하고 부지런 하라' 귀양을 살면서 만난 제자 황상에게 다산 정약용 선생이 써준 삼근계다. 이 글귀를 좋아하는 그도 부지런함과 꾸준함이 한결같아 일 중독자로 불린다. 정작 그는 인정하지 않는데도 말이다. 고교시절에도 대학교를 다닐 때도 수업 농땡이는 기본이었고 술을 자주 즐겼다. 굉장히 잘 놀았지만 일에 대한 몰입도 역시 강했다. 조 노무사는 완벽주의가 그를 일 중독자로 비치게 한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일과 술에 찌들어 살면서도 몰입도가 강했던 이유는 상담이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함께 책임져 달라고 오는 것이거든요. 어느 순간까지는 온전하게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한 번으로 끝낼 상담이 있는 반면에 일정기간까지 책임을 져줘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경우 전력투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온몸을 던져서 책임을 져줘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의 몰입은 비정상적으로 강해집니다."

청주에 정착한 이후 책임진 사안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KT인력퇴출프



로그램 관리자 양심선언과 피해 노동자 지원, 아세아제지 정리해고 노동자 복직,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해고자 복직 및 정상화, 청주시 불법도급택시 근절 및 해고노동자 복직, 동일운수 노동자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단식투쟁, 초정노인복지재단 요양보호사 집단해고 복직, 제천제일택시 집단해고 노동자 복직, 각종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실태조사와 대안제시 등 연간 800여 건이 넘는 노동인권 상담과 법률지원을 하며 취약한 노동자와 고락을 함께 했다.

천안에서 개업 노무사 일을 접을 즈음 맡았던 망향휴게소 노동자 해고 및 노동조합 와해 사건은 가장 잊을 수 없는 노동 현안이었다. 8일간 밤을 새며 당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역사상 가장 두꺼운 800페이지 분량의 서면을 작성했다. 그러나 판정을 유보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고 해고자 6명 가운데 5명이 복직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KT인력퇴출 프로그램도 잊을 수 없는 사건 가운데 하나다. 2008년 피해자의 기자회견장에도, 2010년 중간관리자인 가해자의 양심선언 기자회견장에도, 2010년 기획입안자의 양심선언 기자회견장에도 항상 그가 함께 했다. KT는 이

윤 극대화를 위해 정규직원을 내보내기 위한 퇴출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소위 재야세력 회원들로 이뤄진 KT민주동지회였다. 두 번째는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세 번째는 과거 114에서 자회사로 분사시킬 때 저항한 사람들 순이었다. 104명의 퇴출 명단이 만들어졌고 첫 번째 퇴출 사례가 충북에서 나왔다.

퇴출프로그램은 가혹했다. 내근직으로 일하던 여성에게 전봇대를 타도록 한 것이다. 당시 퇴출프로그램 문건을 입수한 조광복 노무사가 이 사건을 언론에 터트리게 되고 전국적 이슈가 되면서 퇴출 대상자들은 부당 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하게 된다. KT인력퇴출 프로그램은 전국적 사안이었고 한 달간 수집한 증거자료 150페이지를 포함해 서면만 700페이지에 달했다.

10년이 넘는 노동 상담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노동조합 싸움은 쪽수가 중요하지만, 공공의 명분을 움켜쥔 싸움은 포기하지 않는 소수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거기에 공감하는 다수가 작은 힘 하나씩만 보태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

"바둑에서 손 따라 두면 진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발한 전술을 짜낸다 해도 상대가 만들어놓은 구도 속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도 속에 들어가는 순간 손 따라 두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의 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가 손 따라 두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의명분으로 강자를 에워싸고 그들이 구도를 짜기 전에 먼저 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구도는 바로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암벽등반은 인생의 축소판이다

순천이 고향인 그는 여덟 살 때 목포 유달산을 밥 먹듯이 오르내릴 만큼 산을

좋아했다. 지금도 산을 즐겨 찾고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암벽등반을 좋아한다. 술과 책 읽기, 턴테이블로 돌려서 듣는 클래식 감상이 손으로 꼽을만한 취미활동의 전부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은 등산과 암벽등반이었다. 지리산, 설악산, 대둔산을 자주 찾았고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는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실 근육 발달한 멋진 몸을 소유하기도 했다. 그가 스마트폰에서 과거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이며 우쭐했다.

많은 사람들이 암벽등반을 근력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광복 노무사의 설명은 달랐다. 굉장히 정적인 운동, 발레처럼 아름답고 우아한 운동, 몰입도가 굉장한 매력적인 운동이 암벽등반이라는 것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것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다.

"인생은 고유의 인격체로 성장해 가는 선택의 과정입니다. 건강한 인격체로 우뚝 섰다는 말은 자기 선택에 대해서 남에게 미루지 않고 온전하게 결과를 책임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책임이 뒤따르고, 선택을 잘못하면 추락하게 되죠. 암벽등반도 다르지 않아요. 다만, 암벽등반은 즉각적으로 책임을 물리는 반면 인생은 시간이 늘어질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내 선택이 언젠가는 내게 책임을 물릴 것이라는 거죠."

죽음의 목전을 경험한 이후 이런 생각은 더욱 굳어졌다. 8년 전 쯤 설악산 소토왕골에 있는 '한 편의 시를 위한 길'이라는 릿지(암릉) 코스를 오를 때였다. 선등으로 등반하다 바위가 부스러지면서 추락을 했는데, 그 순간 출발하며 확보(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공포가 밀려왔고 100미터 가량 되는 벼랑 끝 땅바닥은 돌진하듯 다가왔다. 만약 뒤따라온 동료가 확보를 해주지 않았다면 자일로 연결된 그와 나머지 두 사람 모두 벼랑 아래로 떨어졌을 것이다. 등반 경험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그 일 이후 그는 두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이며 선택을 잘못하면 책임을 바로 물려

버린다는 것, 피할 수 없는 삶의 순간이 있다면 평온하게 가자는 것이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는 공포가 밀려왔지만 정작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경험했다. 세계적인 산악인 라인홀트 메스너의 『죽음의 지대』는 죽음 목전에서 생환한 사람들이 경험한 심리상태를 인터뷰한 책이다. 그에 따르면 이 책의 주인공들도 하나같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느낀 상태에서 매우 평온했다고 한다.

"추락하는 순간은 의외로 평온합니다. 이미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선등자가 등반 도중 가장 두려울 때는 추락하기 전입니다. 느닷없이 추락하면 괜찮은데 추락할 것 같은 심리상태에서 가지는 공포는 엄청나거든요. 특히 바위에 박아놓은 볼트와 볼트 사이가 길어서 추락 길이가 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때 다리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덜덜거리는데 그것을 오토바이 탄다고 표현합니다."





추락하는 순간의 평온을 떠올리며 그는 도연명의 시 구절을 인용했다. '커다란 조화의 물결 속에서 기뻐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게나. 끝내야 할 곳에서 끝내버리고 다시는 혼자 깊이 생각 마시게.'

피할 수 없다면 미련도 두지 말고 평온하게 가야 한다는 생각은 암벽등반을 통해 깨달은 성찰이다. 상담을 하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중압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는 것도 더 이상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되면 다른 해결방법을 고민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도 자주 그는 암벽등반이 주는 몰입의 즐거움을 욕망한다. 암릉을 따라 올라가며 보는 경치와 풍경 속에 온전하게 빠졌을 때의 느낌도 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마지막 구간인 크럭스의 교훈을 몸소 체험하고 싶다. 마지막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이 구간은 추락의 두려움이 가장 큰 구간으로, 쉴 때 쉬어주지 않으면 손에 산소 공급이 안 돼 땅땅하게 부어오르며 추락할 수도 있다. 최적의 곳을 잡고, 최적의 곳을 디디는 것도 선택이요, 쉴 때 쉬어주는 것도 선택이다. 암벽등반이 인생과 다르지 않은 이유다.

"암벽등반처럼 우리 삶도 한 발짝 한 발짝을 떼기 위해서 전력투구를 해야 합니다. 나는 이 말을 어느 책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내 삶을 살아내면서 배웠습니다. 좋은 삶으로 나가기 위해 그리 해야 한다고 체득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누구를 상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자신의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세상, 좋은 삶을 향해 한 발짝이라도 내딛기 위한 것입니다."

정파와 노선의 도그마를 넘어

올해 초, 조광복 노무사는 동범 최병준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동범상 11회 수상자(시민운동가 부문)가 됐다. 기쁠 법도 한데 특별한 감회는 없다는 심심한 대답이 돌아왔다.

"활동가들에게 왜 상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시민사회에 뚜렷한 일을 했거나 존경받을 만한 일을 했거나, 예를 들어 용기가 필요한 내부고발자라든가 그런 시민들에게 상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상을 받은 것은 무척 감사하지만 시민들이 아니라 활동가들에게 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말로써 선동하지 않았으나 오로지 사진으로 나직하게 웅변했던 사진작가 최민식 선생을 예로 들며, 그는 많은 활동가들이 선생의 일하는 품성과 자세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 상근자가 조직 내에서는 권력이지만 드넓은 세계에서는 모래 한 줌도 안 되는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좋은 상근활동을 할 수 있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세상을 바꾸려면 상근 활동부터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조직 활동가들이 자신의 확신과 신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자신이 속한 노선이나 정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정답이라고 힘주어 말하지만 그 역시 세상 속에서는 모래 한 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충고했다.

"조직 활동가들은 자신이 속한 정파와 노선의 도그마에 갇힐 염려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원칙과 유연함의 문제가 아니라 콘크리트처럼 굳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담에 비유하자면 작은 상담 하나 속에 법률, 조직화, 사회인권, 사람과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이 내포돼 있는데 도그마로 굳어져서는 그것을 보기가 어려워요. 노동인권이나 비정규노동 문제가 사회를 관통하는 근본문제인 것은 맞지만 조직 활동가 출신이 노동인권 활동을 하다보면 자칫 정파



의 전유물로 가둘 위험이 큽니다. 도그마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래 한 줌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래서 단 한 발짝을 대딛는데도 온몸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무모하다 싶은 일에 발을 담근 지 15년째, 그는 노동 상담이 팔자인 것 같다고 했다. 전망이 없어 보일 때도 많았지만 언제나 지혜와 정성과 행운을 기대하며 단 한 발짝도 전력투구를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노동자들과 항상 함께 했고 그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됐다. SNS에 옮겨 적은 임꺽정 만화의 글귀는 조광복 노무사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엿보게 한다. "산 높은 곳에 있으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숨결을 들을 수 없다."

얼마 전 사무실에는 신영복 선생이 글을 쓰고 채의진 선생이 서각으로 만든 청주노동인권센터 제호가 도착했다. 그 제호를 가리키며 조광복 노무사는 흐뭇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당시 선생에게 부탁한 글은 두 점이었는데 그 중 하나가 청주노동인권센터 제호고 또 다른 하나는 '百鍊剛'이라는 한자 글씨였다. 백련강이 무엇인가. 백 번이나 단련한 쇠의 단단함을 말한다. 신영복 선생은 서화에

세이『처음처럼』에서 백련강이라는 한자 글씨와 관련해 이런 가르침을 전한 바 있다. "좋은 쇠는 뜨거운 화로에서 백 번 단련된 다음에 나오는 법이며, 매화는 추운 고통을 겪은 다음에 맑은 향기를 발하는 법이다."

백련강의 가르침을 받은 조광복 노무사가 지금보다 더욱 단단하고 고요해지기를, 그리하여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든든하고 좋은 벗이 되기를 기대해본다.